

베테랑 붙잡고 MLB 투수 품고...새해 거침없는 KIA의 행보

김선빈·최형우와 계약...새 외국인 투수 크로우 영입
전력 구성 마무리 눈앞...외인 투수 한 자리만 남아

2023시즌 종료 후 더뒀던 프로야구 KIA 타 이거즈의 발걸음이 새해 들어 빨라지고 있다. 팀의 기동인 김선빈(35)과 최형우(41)를 붙잡은 데 이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풀타임 선발 투수로 뛰었던 월 크로우(30)와 손을 잡았다.

지난해 6위로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던 KIA는 시즌을 마친 뒤 호주 프로야구와 미국 드라이브인 베이스볼센터에 선수단을 파견하며 기량 발전, 육성에 힘을 쏟았다. 이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재계약(약 15억6000만원)을 완료하며 순탄한 길을 걷는 듯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계약 이후 2주 넘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프리에이전트(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김선빈과의 협상에서

진통을 겪었고, 외국인 투수 영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2023년 안에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KIA는 새해가 밝은 뒤 선수 계약에 속도를 냈다. 지난 4일 오랜 협상 끝에 프랜차이즈 스타(구단과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 김선빈과 계약 기간 3년, 총액 30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KIA는 내야에 붙은 물음표 하나를 지웠다. 김선빈은 지난 시즌 11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0 134안타 4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39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김선빈이 KIA의 2루를 책임진다.

KIA는 빠르게 또 하나의 계약을 성사했다. 5일 중심 타자인 최형우와 계약 기간 1+1년, 총액 22억원에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장타력, 해결사 본능, 뛰어난 리더십 등을 겸비한 최형우는 KIA에 필요한 존재다. 지난해 121경기에 나서 타율 0.302 130안타 17홈런 81타점 OPS 0.887의 호성적을 거두며 간재함을 뽐냈다.

베일에 싸여있던 새 외국인 투수도 윤곽이 드러났다. KIA는 7일 우완 투수 크로우와 100만 달러(약 13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KIA가 고심 끝에 영입한 크로우는 MLB에서 94경기를 뛴 투수다.

통산 성적은 10승 21패 16홀드 5세이브 평균자책점 5.30. 주목할 만한 이력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풀타임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2021시즌이다. 26경기 중 25경기를 선발 투수로 출전해 116%이닝을 던졌고 4승 8패 평균자책점 5.48을 작성했다.

KIA는 크로우의 뛰어난 구위, 다양한 변화구, 풍부한 경험 등을 강점으로 꼽으면서 선발진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조각을 맞춘 KIA는 외국인 투수



한 자리만 남겨두고 있다. 새해 들어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고 있는 KIA는 곧 나머지 외국인 선수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우의 짝꿍을 찾으면, 올 시즌 전력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슬비기자

ESPN “한국, 손흥민 보유했지만 클린스만 적합한 감독인가”

부진했던 경력과 국내 여론 안 좋은 상황 짙어
손흥민 등 앞세워 우승해야 ‘의문 바뀐다’ 예상



미국 매체 ‘ESPN’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SPN’은 9일(현지시간) “한국은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적합한 사령탑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파울루 벤투 전 감독(현 아랍 에미리트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세계 축구계 이름값으로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이었지만, 지도력에는 의문이 따랐다.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현역 시절과 달리, 지도자로서의 최근 경력이 좋지 않았기 때

문이다.

미국 대표팀, 헤르타 베를린(독일) 등을 이끌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베를린과 헤어진 이후 3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단점도 대두됐다.

‘ESPN’도 “한국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특히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언론과 팬들은 그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과 자책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간을 비교하기도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우승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을 둘러싼 의문을 걷어낼 수 있을 거라 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우승 이후 64년 동안 아시안컵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ESPN’은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한국은 유력한 우승 후보이며, 클린스만이 그 우승을 실현해낸다면 여론이 뒤바뀔 거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가뭇물 걷어내는 것이 의문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한국 축구가 가진 재능이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ESPN’은 한국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 중 8강에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속한 E조와 다른 조 상황을 고려했을 때, 8강에서 중동 강호인 이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매체는 “전력대로라면 한국은 8강에서 이란을 만날 것이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9 대회 당시,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카타르에 패배해 탈락한 바 있다”며 “당시 벤투 감독은 (조기 탈락에도) 태극전사들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으나, 비슷한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하고 정지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클린스만호는 오는 15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상대한다.

슈퍼컴이 예측한 쏠컵, 한국 우승 확률 2위...1위는 일본

한국 14.3% 가능성...일본은 24.6% 기록
“1만번 시뮬레이션 중 절반 이상 일본 진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확률이 14.3%라는 예측이 나왔다. 24.6%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2위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는 9일(현지시간) “2023 아시안컵을 예측했다. 자체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일본이 우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우승 확률은 24.6%다. 옵타는 “일본은 1만 번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절반 이상 준결승에 진출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은 아시안컵 전 최종 모의고사로 치른 요르단전에서 6-1 대승을 거두며 최근 A매치 10연승을 구가했다. 전력도 강

한 데다 흐름까지 좋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옵타는 한국의 우승 확률을 14.3%로 예측하면서 “일본에 가장 근접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유력 우승 후보로 점쳤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팀 전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3위는 이란(11.2%)이었으며, 4위는 10.6%로 예측된 사우디아라비아였다. 개최국 카타르는 9.8%의 확률로 5위를 기록했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감독이 이끄는 ‘복병’ 아랍에미리트(UAE)는 2.9%로 6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조별리그 E조에 함께 자리한 경쟁

국 중에선 두 번째 상대인 요르단이 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1차전 상대인 바레인이 0.9%를 기록했다.

클린스만호의 3차전 상대이자 한국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0.2%로 E조에서 가장 낮은 우승 확률로 예측됐다.

또 다른 한국 국적 사령탑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역시 0.2%의 우승 확률로 참가국 중 하위 그룹으로 평가됐다.

클린스만호는 10일 결전지인 카타르에 입성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훈련 중인 한국 대표팀은 이날 오전 훈련까지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오후 5시55분 도하에 도착한다.

한국(국제축구연맹 순위 23위)은 바레인(15일·86위), 요르단(20일·87위), 말레이시아(25일·130위)를 차례로 상대한다.

뉴시스

박세리 이름 건 LPGA 대회 열린다

3월22일부터 나흘간 LA서 개최 ‘퍼 힐스 세리 박 챔피언십’



26억원)이고, 144명의 선수가 경쟁을 벌인다.

지난해까지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으로 펼쳐졌던 이 대회는 올해 박세리가 호스트 역할을 맡으면서 새 이름으로 열리게 됐다. 선수 출신이 호스트로 나선 LPGA투어 대회는 안니카 드리븐 바이 게인브릿지 옛 펠리컨(안니카 소렌스탐)과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미셀 위)뿐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OK 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이 열린 적이 있으나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을 건 대회가 생긴 것은 역대 최초다.

박세리는 LPGA 투어를 통해 “대회 호스트로 LPGA 투어에 복귀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다음 세대의 골퍼들에게 조언하고 내가 사랑하는 골프에 환원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1998년 LPGA투어에 입성한 박세리는 2016년 은퇴하기 전까지 통산 25승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V-리그 사상 첫 통합 우승 4연패 ‘적신포’

링컨 장기간 부상 공백에...국내 선수들로 역부족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의 V-리그 사상 첫 통합 우승 4연패에 ‘적신포’가 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했다.

이번 시즌 최하위 KB손해보험(4승 18패·승점 17)과의 상대전적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임동혁(29점)과 정한용(18점)이 고군분투했지만, 국내 선수들이 주축인 공격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항공(12승 10패·승점 38)은 1위 우리카드(15승 6패·승점 42), 2위 삼성화재(14승 7패·승점 38)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시즌 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V-리그에서 이미 검증이 된 외국인 선수 링컨과 국가대표 거포 임동혁이 이끄는 공격진은 리그 최강이었다. 최근 세 시즌 연속 정

규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휩쓴 대한항공의 통합 우승 4연패의 가능성은 높아 보였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최고의 공격수 임동혁을 앞세워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했다. 세터 한신수의 노련한 토스도 한몫했다. 상위권(2, 3위)에 머물며 1위를 달리던 우리카드를 압박했다.

하지만 공격적인 한 축을 담당하던 링컨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지난해 11월30일 이후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다.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재 임동혁과 정한용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39세 세터 한신수 역시 체력 안배가 필요하다.

전력 저하는 곧바로 성적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로 부진했다.